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32과,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32회,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합시다. 오늘은 당신이 만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캠퍼스에서 교수로서 학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헌신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낙담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격려와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거나 낙담할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에 소망을 주시는 이사야에게 감사합니다. 역사에는 좌절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역전과 물음표와 갈등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당신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며 당신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승리에서 최종 승리로 인도하시는 이사야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안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발표에서 아하스, 이사야, 에마누엘, 엘마, 페톨라, 파르테노스 및 그 회사에 관해 질문하신 분 계시나요? 내가 그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고전적이고, 역사적이며,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인이고 그러한 꼬리표와 함께 어울리는 동정녀 탄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올바른 이유로 그것을 믿으십시오.

거기에는 엘마라는 단어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성이지만 제가 보여 주려고 했던 것처럼

작가들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러한 다른 종류의 수식어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확한 문구가 마태복음에 특히 아이를 낳을 파르테노스에 관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은 고통받는 종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유사점뿐만 아니라 종종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프로 축구 경기에서 한 남자가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독자들이 스스로에게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인지 물을 때, 유대인 주석가들이 주님의 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집단적으로 고통받는 국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인 에바드 야훼의 개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종종 다른 세력들에 의해 압도당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53장의 표징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멜 깁슨이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여 영화를 개봉하면서 여러분을 즉시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봅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이사야 53장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그 고난 받는 종을 매우 분명하게 해석하여 민족의 고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고난 받는 종, 그의 죽음을 통해 고난을 받는 그분의 독특한 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부활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설명, 그에 대한 예측 설명입니다.

왜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이라고 부르게 된 구약성경 뒷부분의 용어집은 히브리어 성경의 초기 신자들을 위한 신학적 해석이다. 우리 유대인 친구들도 자신들의 미드라쉬, 즉 해석적 주석을 갖고 있으며, 특히 교회 탄생 이후 몇 세기 동안 랍비들이 다양한 주석을 종합하면서 우리는 두 공동체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약간의 반대 반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유대교 토론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반대를 믿습니다. go라는 단어부터 상황이 상당히 다르게 정의됩니다.

예수는 유대인일지도 모르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바로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를 매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 우리의 경우 성경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주석을 내장하고 있으며, 이사야 53장의 12절 중 9절은 그리스도의 삶, 가치, 사역, 특히 열정과 연결시키려는 신약성경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여호와와 종, 즉 에벳 야훼라는 표현은 이사야 5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구약성서의 족장들은 여호와와 종들로 불립니다. 모세는 민수기 12:7에서 여호와와 종으로 묘사됩니다. 같은 종류의 언어인 조슈아.

사무엘하 7장의 신학적인 다윗 언약 구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와 종으로 언급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 일반적인 용어를 보았듯이, 선지자들도 또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교 왕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레스를 마시아,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다면 범주가 얼마나 멀리까지 확장되는지 잊지 마십시오 . 즉, 기름부음받은 자는 538년의 법령을 통해 이스라엘이 BC 536년에 시작된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대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특정한 내부 신앙인들에게만 국한시키고 싶은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설계자이심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천 개의 언덕 위의 가축은 그분의 것입니다. 은과 금은 그분의 것입니다.

후자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학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나라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나라들의 분노에도 그분을 찬양하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신학적 범주 중 일부를 확장하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역사의 큰 그림을 형성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보시는 대로 그것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헤슈가 말했듯이, 그분은 이스라엘 적들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 에벳야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종은 이사야서 자체에서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사야 외에 주님의 종이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사야의 속을 보면 여호와와 종이라는 말이 기업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킨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그것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에 적용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데려왔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브나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참조, 42:6.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느니라.

나는 당신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것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인 라오르 고임(La'or Goyim)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 동일한 구절이 신약성경 후반부에 등장하며 또 다른 증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원래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삶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 즉 신명기 6,4장 이하의 쉘마의 히브리어 본문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한 분이시니라 본문을 복사한 유대 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을 구약의 증인 본문으로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쉘마(Shema)로 히브리어 문자 중 하나인 아인(ayin)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ehad는 하나를 의미하며 dalet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히브리어 성경을 열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주 아주 드문 일인데, 그 줄에 있는 다른 글자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눈에 띄는 글자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인 ayin과 dalet을 함께 발음하면 원조라는 단어가 됩니다.

원조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아담, 증인, 복수형. 유대인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까? 글쎄요, 랍비들이 이 두 글자로 쉘마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강조한 것처럼, 당신은 다신교인 당신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하나됨을 목격합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랍비 아키바(Rabbi Akiva)는 135년에 로마인들이 쇠 발톱을 빨강게 달궈질 때까지 가열하여 그의 살을 찢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초기 랍비 자료에 따르면 그는 에하드(ehad), 즉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신을 갖고 있는 로마인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도움과 증거의 요점을 매우 강력하게 이해했습니다.

초기 그리스 공동체는 증언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마르토레오(martoreo)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우리 영어 단어인 순교자(martyr)도 결국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증언하거나 증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교회의 초기 전통에 따르면 마르토레오라는 단어가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신약성서를 읽어 보세요. 12사도 중 11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온 세상에 윤리적 유일신교를 증거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은 주님의 종에 관한 이 모든 구절이 소위 이사야의 종 노래에 흠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이사야서 후반부 전체에 걸쳐 이러한 종 노래가 여러 개 흠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2:19가 그 예이다.

여기 너희는 귀머거리도 보고, 눈멀어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머거리와 시각 장애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지, 메시아도 아니고, 신약의 예수도 아닙니다. 42장 19절에 보면, 내 종 외에 누가 눈멀고 내가 보낸 사자와 같이 귀머거리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처럼 눈먼 사람이 누구며, 여호와와 종 에벳야훼처럼 눈먼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지만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잊어버린 자신의 백성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간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불성실한 종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본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에벳야훼를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을 의로운 남은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상적인 이스라엘로 언급되거나 이사야 자신이 항상 꾸짖었던 불순종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로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남은 자를 가리킨다(44:1). 그러나

야곱아,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흥미로운 단어인 여수룬을 사용합니다.

내가 택한 여수룬. 이제 히브리어로 Yashar는 곧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애정의 용어, 여수룬 즉 정직한 자라고 보았습니다.

곧은 것.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Agapetos)로 바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일종의 애정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한 자, 이 용어는 신명기 32:15와 신명기 33장에서 여수룬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종의 애정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44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 주고,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그들은 풀밭의 풀처럼, 흐르는 시냇가의 미루나무처럼 돌아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손에 주님의 손이라고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적인 이스라엘, 의로운 남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의지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력을 느끼고 그들과 동일시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첫 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예언적인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흥미로운 예언적 발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의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리고 언약이 확장됨에 따라 확장된 이스라엘 버전은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을 포함하도록 더욱 포괄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자신을 볼 수 있는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필립이 아프리카인, 즉 그가 때때로 부르는 에티오피아 환관과의 만남에 대한 흥미로운 구절을 생각합니다.

빌립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무엇을 읽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인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마차를 타고 튀어나옵니다.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입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정당한 질문이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 말합니다. 헬레니즘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말의 연인, 말의 친구를 의미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거룩한 성에서 복음을 가지고 북쪽으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나아간 최초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문화의 영향에 좀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아프리카 출신 사람, 즉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필립이 말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를 타고 자기와 함께 앉으라고 합니다. 내시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털을 깎는 자의 침묵 앞에 있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정의를 박탈당하는 등의 일을 겪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서 빌립은 그에게 미드라쉬(midrash), 즉 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그 자신의 전통에서 그 단어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미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자지구 어딘가에서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매점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례가 있습니다.

그는 그 본문이 선지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사야 61장이 원래의 문맥에서 선지자, 곧 선지자 이사야를 언급하는 곳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제를 마치기 전에 이 구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동일시하셨지만, 원래의 맥락에서 볼 때 이 구절은 선지자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록 제한적인 의미일지라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부음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회적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벨론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 포로들로부터의 자유, 감옥의 어둠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할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문맥은 이사야 40-66장에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강조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우리는 자유 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했던 방식은 우리가 이 과정을 시작한 곳, 즉 감각 전체, 더 깊은 의미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이 병행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종과 동일시됩니다. 자유케 하는 사역입니다.

교도소 사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병환자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선지자 자신을 언급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강조점은 이것을 메시아, 즉 지상의 왕권의 영광과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겐손, 또는 복음서에 따르면, 그분은 그리스어로 섬김을 받으라는 수동 부정사가 아니라 능동 부정사, 즉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고난 받는 종에 관한 우리의 고전적인 구절은 예수님을 언급하며 52장 13절에서 시작하여 53장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절 구분이나 장 구분에 영감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성경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각 연에는 각각 세 개의 절이 있기 때문에 다섯 개의 연 중 첫 번째 연을 얻으려면 52장의 뒷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15절은 첫 번째 연이고, 53장에는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에 관해 절정에 달하는 다섯 연 중 네 개의 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52-53장의 고통받는 종은 신약성서 저자들에 의해 예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하프타라 낭독의 일부로 사용되었지만, 나는 앞서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선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토라 사본이나 아들에게 할례를 받은 여성들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마카베오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부과한 몇 가지 매우 엄격한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집안의 마카베오 가문은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유대 민족의 헬레니즘화를 받아들이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성전에 있는 제우스의 독수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토라 사본을 손에 들고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리스 박해자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누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빛의 축제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자유의 축제입니다.

즉, 우리는 헬레니즘화되어 죽지 않을 것이고, 혼합되어 죽지 않을 것이며, 문화적 적응을 겪지 않을 것이므로 나머지 모든 나라들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그 용감한 입장은 물론 8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2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땅 사람들의 그리스 헬레니즘화의 전복을 기념하는 하누카를 기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토라 사본을 손에 갖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토라에 나올 수 있는 동일한 기본 주제 또는 주제를 가진 선지자들의 조화된 읽기를 발견했습니다. 독서 부분.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수세기 동안 하프타라(HAFTARAH)의 일부였지만 유대인들이 부두에 끌려가서 논쟁, 신학 논쟁을 통해 고통 받는 종이 누구인지 대답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심문관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심문을 다루는 전체 문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구는 회당 낭독에서 삭제되었고, 오늘날 유대인 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약간의 특성이 됩니다. 즉, 그것을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읽는 내용이며, 그들 자신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대적인 반항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면서 네 가지 주요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의 고난이 유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명성이자 걸출한 보고서입니다. 사실, 그것은 책의 마지막 장을 먼저 읽은 다음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첫 번째 연에서 승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실 때까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승영이 없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승리한 후, 우리는 기독교 신학이 그의 승영의 세 가지 단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의 세션입니다. 이것이 승영의 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죽음, 장사 후에야 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언급된 이 종은 우리가 그에 대해 처음 읽는 것은 그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NIV에서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것을 번역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위원회의 소수 투표가 여기 각주에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영을 위한 것이든 지혜롭게 행동을 위한 것이든, 다음 줄에서는 그가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Adoniram, Judson Gordon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도니람, 나의 주님은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도니람의 뜻입니다.

나의 주님은 높이 들리워지셨습니다. 램(Ram), 즉 라마(Rama)는 높은 곳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의 승영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셨습니다. 종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겸손을 통해, 즉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무명으로 만들거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자신의 신성한 속성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라는 굴욕을 감수하면서 종으로서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에게 있었던 높은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그에게 경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매맞고 멍든 이 사람에 대한 멜 깁슨의 묘사에 이르렀고 우리는 그의 스냅샷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외모가 인간의 모습을 넘어서 너무 훼손되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 놀랐다. 따라서 그의 인간적 특징 중 많은 부분은 시가 고양되어 있지만 과장되고 비유적인 언어이며 언어적 그림을 시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군인들의 손에서 받은 학대를 말해줍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RSV는 다음 구절에서 그가 많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NIV는 다른 읽기를 선택하므로 그는 많은 나라에 뿌릴 것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본문을 읽는 다양한 규칙 중 하나는 어려운 읽기일수록 올바른 읽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긴 읽기보다는 짧은 읽기가 더 정확한 읽기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점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배기관과 같은 콜로폰을 확장하고 붙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확장했고 원본이 더 간결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따라올 수 있었고 주기도문에서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멘. 그것은 훌륭한 결말이며, 일요일 아침이나 원한다면 매일 암송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학은 훌륭하지만 원래 제자들의 기도의 일부가 아닐 뿐입니다.

하지만 15세기나 16세기의 어떤 서기관은 그것이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확장합니다. 이미 매우 훌륭한 유대인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디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파생됩니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토라에서 발견되는 것들의 일종의 콜라주입니다. 이 특정한 경우에 열방에 뿌리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영적 정화를 염두에 둘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생명수에 반응함으로써 일종의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수치는 왕들조차 멍하니 고개를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왕들은 입을 다물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닮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이 인간 육체 조각에서 나오는 이 승리, 승영, 승리의 광경을 보면서 말을 할 수 없는 경이로움 속에서 아마도 이것을 할 것입니다. 비극에서 승리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T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탠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입니다.

두 번째 연은 53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와 선지자를 포함한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큰 의인화설이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인간 신체의 형태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의인화설과 의인화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팔. 주님의 팔은 능력의 암호어입니다.

사실, New English Bible은 주님의 팔을 표현하고, 그 관용어를 취하여, 그 의미로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합니다. 주님의 팔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인간사에 대한 특별한 개입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적을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슈아, 구원, 자유, 석방,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팔이 임재하십니다.

이집트어로는 팔을 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집트어는 그림 문자입니다. 그리고 힘이 나 힘으로 번역되는 뺀 팔은 이집트어로 매혹적입니다.

그 컨셉을 표현하고 싶다면 팔을 내밀어 힘이 나 힘을 표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예수님은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신 후에도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눈이 멀고 마음이 무뎌지고 보고 이해할 수 없음을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37-41. 그러므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능력, 즉 속사람의 영적인 것을 보는 능력은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표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영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겉으로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사야서 53장에 대해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32회,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입니다.